

김용민브리핑

2017년 1월 11일 수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d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전통방송 속성! 최고의 맛은 알싸한홍어	1599-6456, 010-9384-7970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정성농장홍삼	041-754-0884, 010-9754-6972 jeongseongfarm.com
시대와 삶을 함께 읽는다! 한국현대생활사	창작과비평사 031-955-3333 goo.gl/YDYJDW
바로 잡힌 글판, 건강한 인생 바디로직	070-8220-5796 store.bodylogic.co.kr
무료 웹 애니메이션 채널 좀바라TV	032-258-6261 zombara.com
최고급 러시아 냉동대게 대게직거래장터	1644-9047 cafe.naver.com/snowcrab09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비타샵	031-783-6007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쫓! 장 청소는 미궁장사랑	070-4115-0365, 010-2892-0365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수아비스화장품	1688-9113, 031-717-1613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풍무양고기	031-902-9292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매트리스엠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내피알	032-519-4800 nepr.co.kr
일반 짜장 파스타 맛에 취했다 킹닭갈비	070-4217-7179 goo.gl/XYfR9D
김용민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대리운전	1522-9687 박근혜 구속시 1회 무료이용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킷점	facebook.com/tartfarm13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이담채김치	1544-4586 edamche.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전창걸의새싹땅콩차	070-8635-1288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좋은사람과플라워	1566-0263 flowergood.co.kr
월1만원 황제보험카페 그리고 월7천원안전자보험카페	02-849-9730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먹고 먹을 수 있는 와우전복	010-2443-0818 wowabalone.modoo.at
한우 사골에 가미하여 팔팔 끓인 연지연곰탕	0-10-7252-1114, 031-989-9968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확대중단!

잘가라! 핵발전소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블랙리스트는 우리의 일이다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여러분, 오늘 제가 5년 만에 지상파라디오방송 SBS라브FM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인 박진호 SBS기자가 저에게 블랙리스트에 올랐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따위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랐겠습니까?”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만 남의 일은 아니었음은 짐작됩니다.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사는 나라, 즉 공화국을 국가 기틀로 삼는 나라에서 주권자인 국민 중에 차별하고 배제할 대상을 분류하는 것은 헌법위반 즉 국헌문란 행위지요.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오늘 세종시 정부 청사로 향의 방문합니다. 향의방문 예술인 중에 한 분인 가수 손병휘 씨를 ‘김용민 브리핑’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로 블랙리스트 버스가 간다. 전국에서 100여명의 문화예술인과 노동자, 학생들 90여명이 참가한다. 해방 이후 보도연맹 리스트처럼 이번 블랙리스트도 사람들을 해쳤다. 세종시 청사로 조운선 장관 만나러 가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의 모순을 만들어낸 권력과 자본, 그리고 관료 모두를 정조준하는 것이다.

사실 내가 만들고 부른 노래들은 달콤한 노래들이 많다. 하지만 세상이 그런 노래들을 못 부르게 만든다. 거리의 가수라는 인식이 있지만 나도 따듯한 곳에서 밀랑밀랑한 노래 부르고 싶다. (웃음) 현 정권이 너무 무도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분도 계신다.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문화·예술인을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봉건왕조 시대에도 가면을 쓰면 왕을 비판해도 상관하지 않는 이량이 있었다. 문화·예술인들은 1박 2일 동안 기자회견과 예술행위, 성명서 전달할 및 진입투쟁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철저히 행위예술이고 우리는 문화·예술인다운 행동을 할 것이다. 재미있을 것이니 놀로 오시라. 우리들은 별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모두 여러분의 이웃이다. 이웃답게 하는 행동이니 지켜봐 주시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에 있습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월 11일(수) 1부 | 반기문, '성완종의 저주에 빠지나...'

- [오프닝] '블랙리스트 버스'에 오르는 예술인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최순실, 장시호에 격분...“이게 (내게) 덤터기 씌우려”
-박근혜 최순실 공모 밝혀 독취록 207건 더 있다
-특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뇌물죄’ 적용 가능”
-단단히 맘 먹은 현재...“불출석지연 꼼수’ 용납 않기로”
-위안부 합의 환영한 반기문, 여성학 명예박사라고?
[뉴스듣기능력평가] 도망간 남미 국가 대통령 관련 퀴즈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드디어 타진 반기문 친인척 비리·동생 부자 뇌물죄 기소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세월호 사건으로 다시 돌아보는 현대조선 폭동 사건
-인공지능 로봇으로 10년 안에 1575만 일자리 사라진다
[공화국 논평] 헌법재판소에 대한 강도높은 중대조치

탄력 받는 특검 수사

東亞日報 장시호 ‘태블릿PC’ 제출, 崔 격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최순실이 사용한 태블릿PC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 장시호는 특검에서 “독일에 있던 최순실의 집에서 태블릿PC를 들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은 장시호가 ‘자발적으로’ 특검에 본인의 태블릿PC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했다고 한다.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최순실은 “이게 나한테 덤터기를 씌우려 한다. 뒤에서 온갖 짓을 다 한다”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태블릿PC에서 삼성 지원금 수수 등에 대한 이메일과 대통령 박근혜의 청와대 회의 발언 수정본을 발견했다.

東亞日報 朴·崔 녹취록, 207건 더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비공개 녹음 파일 207건을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녹음파일에는 대통령 박근혜가 취임 전 대선 후보 TV 토론과 취임식 준비 등을 최순실과 상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박근혜에 대한 ‘네거티브 대응 전략’ 수립에 최순실이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검찰은 박근혜와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최순실이 ‘국정 농단 공모’ 혐의를 부인할 때마다 이 녹음 파일을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미르·K재단 헌금에 ‘뇌물죄’ 적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의 최순실·정유라 특혜 지원에 대해 뇌물죄 적용 방침을 굳혔다. 또한 특검은 나머지 다른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SK, 롯데, CJ 등이 회장 사면과 면세점 사업권 등 현안 해결을 대가로 출연금을 낸 게 아닌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뇌물죄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

오늘을 읽는 책
똑똑한 바보
호세 호아킨 페르난데스 저 바움 간



단호한 헌재

한국일보 “朴, 세월호 답변서 다시 제출하라”

대통령 박근혜 측 법률 대리인단이 ‘세월호 7시간’ 행적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에는 아침 8시 58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는 아침 10시가 되어서야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또한 박근혜가 아침 10시 15분에 첫 사고 대응 지시를 한 이후 다음 지시는 낮 2시가 넘어서야 내렸다고 밝혔다. 박근혜가 보고만 받고 새로운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렇다 보니 재판부는 박근혜 법률 대리인단 측에 “대통령의 기억을 되살려 당일 행적을 밝히라”며 답변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경향신문 헌재, 탄핵심판 강행군...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소환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이 출석하지 않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이 자신의 형사재판 등에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들에게 구인장을 발부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변론 일정도 내일 4차 변론에 이어 다음주에 세 차례 변론을 열 계획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주 2회씩 열린 것과 비교하면 강행군이다.

중앙일보 “박근혜, ‘탄핵 불가’ 증명하라”

재판부는 “일반 형사재판 피고인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도 된다. 하지만 탄핵심판이니가 대통령도 사실 여부에 대해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기본적인 법 이론까지 동원해 요구사항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측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형사재판을 언급하며 범죄 혐의를 부인하려던 박근혜 측으로서는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됐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정주백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심판은 소추를 당한 박근혜가 탄핵 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검증

국민일보 여성학명박이라며 위안부엔 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년 전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것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여성학 학위를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한·일 위안부 합의에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진 당일에 발표된 해당 성명에서는 대통령 박근혜와 일본 아베 총리의 리더십에 감사하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반기문 전 총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었다.

한국일보 사드·위안부 문제, 반기문의 족쇄

한반도 사드 배치와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침묵하고 있다. 두 이슈 모두 반기문 전 총장의 친정인 외교부가 주도하고 관여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반기문 전 총장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여야 대권주자 모두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반대 여론도 강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반기문 전 총장이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또한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제3지대행이 접쳐지는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 역시 또 다른 검증대인 셈이다.

설 앞두고 물가 비상

중앙일보 물가, 1% 올랐다고?

중앙일보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산출 대상인 460개 품목 가운데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품목의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로 집계됐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와 물가상승률이 괴리가 생기는 것은 가중치 때문이다. 통계청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품목들에 높은 가중치를,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낮은 가중치를 부여해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의 괴리가 정부 정책의 오작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칼럼

한겨레 “다수와 진보정권의 탄생”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박찬수 한겨레 논설위원의 “다수와 진보정권의 탄생”이다.

새해 초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의 핵심은 하나다. 대세론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문제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승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표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정권교체’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이 추세를 뒤집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수록 연대의 중요성은 커진다. 민심이 야권의 분열과 오만에 등을 돌리는 데엔 한 달이면 충분하다. 연합과 연대는 ‘대선 이후’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박근혜 퇴진’ 깃발 아래 모인 지지층은 선거 이후엔 흩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수 진영은 공세를 재개할 것이고, 진보 쪽에선 개혁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표출될 수 있다. 반동을 뛰어넘어 촛불의 요구인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유지해야 한다. 다양한 정치세력을 끌어안는 노력이 문 전 대표에게 필요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최근 그의 발언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모두 민주정부 후예다. 대선 과정에서 힘을 모으길 간절히 바란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 말이 정치적 수사로 그려선 안 된다. 누가 뭐래도 문 전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주자다. 그런 만큼 훨씬 담대하게 비판과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진보(또는 민주개혁) 정권이 출범할 수 있었던 기회는 6월항쟁 직후인 1987년뿐이었다. 군부 출신의 노태우 민주당 후보(36.6%)가 승리한 그해 대선에서 김영삼·김대중 두 야당 후보의 지지율 합계는 55.1%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올해 대선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보 진영이 자력으로 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어 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공동정부든 연립정부든 또는 새도 캐비닛이든, 진보·시민세력이 대선 과정부터 함께할 수 있는 틀을 짜려는 고민과 노력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